

2024.05.30.(목) Signal Diges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Signal Report'의 축약 버전으로 전일 시간외 특징주와 당일 주요 이슈까지 한 장의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TODAY ISSUE>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

#폭염 #전력망

에어컨 못 틀면 어쩌나...'역대급 폭염' 앞두고 '초비상'

텍사스 전력 수요는 지난 20일 7만2261메가와트(MW)로 2022년 5월 최고치(7만1645MW)를 넘어섰다. 로이터는 "텍사스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올여름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멕시코에선 수년간 전력 생산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데다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도 줄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주:** 제룡전기, 제룡산업, 일진전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바이오스마트, 대한전선,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서남, 대원전선, 세명전기, 피앤씨테크,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서전기전, 지투파워, 제일일렉트릭, 보성파워텍, 금양그린파워

#유리기판

코닝 "반도체에 유리 더 필요할 것...유리기판 사업 진출하겠다"

- 시간외: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 **관련주:** 제이티, 제이앤티씨, 유티아이, 희림

#비만 #위고비

비만치료제, 황금빛 전망..."공급부족 풀렸다"

비만치료제의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033년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천억 달러(136조5천억 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1천500억 달러(204조8천억 원)로 크게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투자은행 리링크도 2032년까지 연간 매출이 1천580억 달러(21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매출 전망치를 크게 올린 것은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Wegovy)와 일라이 릴리의 켈바운드(Zepbound) 등 비만치료제를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덩달아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이큐비아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난해 전 세계 지출은 총 240억 달러(32조8천억 원)에 달했다. 또 이 수치는 2028년 1천310억 달러(1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주:** 펠트론, 넥스틴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드림씨아이에스, 인벤티지랩, 한독, 한국비엔씨, 일동 제약, 아이큐어,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대봉엘에스, 애니젠, 라파스, 대원제약, 고바이오랩, 대응제약

#약 배송 #규제

[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주:** 블루엠텍, 제이브이엠

#중국 #전고체 배터리

"중국 정부, 전고체배터리 R&D에 1조원 투자...업계 최대 규모"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차이나데일리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웰리온 등 배터리업체와 비야디(BYD), 디이자동차(FAW),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등 자동차업체의 최소 7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관련주:** 레이크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미래컴퍼니, 필에너지, 유일에너지테크, 엠케이전자, 미코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시간외Y] 제이티 '상한가'

반 홀 코닝 한국 총괄사장은 금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유리기판 분야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업체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코닝은 충남 아산에 연구개발(R&D)과 제조 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내에서 유리기판을 생산 중이다.제이티는 지난 2020년 코닝에 울트라싱글래스(UTG) 레이저 커팅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장비는 레이저를 사용해 UTG 공정에 사용하는 글래스 원장을 자동으로 커팅하는 장비로, 유리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와이랩 (+7.11%)(100K) / 엔비티 (+5.10%)(16K) / 디앤씨미디어 (+2.84%)(7K) / 미스터블루 (+2.67%)(131K)

네이버웹툰, 6월 나스닥행 이상무...주식 플랜 관리자 선임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식 플랜 수석 관리자를 채용 중이다. 6월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웹툰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상장예비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쿠팡처럼 나스닥에서 뉴욕증권거래소로 마켓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슈어소프트테크 (+6.51%)(1728K)

(24.05.27)[특징주]슈어소프트테크, 뉴스케일도 인정한 SMR 기술력...400조 시장 '선점'

한국형 원자로 계측제어시스템의 시험 검증을 15년 이상 수행해 왔다. 특히 IEEE 1012, KINAC/RS-015 표준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검증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에서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검증에 참여하면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만드는 소형모듈원전 검증 사업에 참여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신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육성하고 있다.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검증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테스트 바이 AI'와 AI 자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오브 AI' 두 가지 방향으로 미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하반기 대기업과 의미 있는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엔플러스 (+4.64%)(532K)

이엔플러스, 'AI 반도체' 적용 가능한 신규 이차전지 방열 소재 2종 개발

이엔플러스는 그래파이트(흑연) 기반의 신규 방열 소재 2종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발로 이엔플러스는 한층 다양해진 방열 소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관련 제품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AI용 반도체 칩의 연산·처리 속도가 초고속화됨에 따라 발열량도 많아져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그래핀 등 탄소 기반 소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신규 방열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며 "해당 제품은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존 2차전지 제품은 물론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구석유 (+4.60%)(266K) / 한국석유 (+2.58%)(42K)

이스라엘 난민촌 또 포격 21명 사망...속 타는 미국 "레드라인 아냐"

"라파 텐트촌 공습 무기는 미국이 지원한 소형폭탄"...NYT, CNN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 11차 전기본 계획 발표 예정 / 24.05 中

△ 델 실적발표 / 24.05.30

△ HLB,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 24.05.31

△ 미국임상종양학회 ASCO / 24.05.31~06.04

△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 / 24.06.03~10

<Signal Digest>

[주간 일정]

5월 30일(목)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31일)
- 원전 로드맵 수립 2차 회의
- 제3회 청정수소교역 이니셔티브포럼 -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31일)
- 비트코인 서울 2024(~31일)
- 버추얼 걸그룹 핑크버스 음원 공개
- 2024 인디크래프트

-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워크)(~31일).

5월 31일(금)

- 미국무장관, 몰도바 방문(~31일).
-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2일).
- MSCI 리밸런싱
-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 BBQ, 치킨값 인상
-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31일).
-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31일).
- 비트코인 서울 2024(~31일).
-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 미국임상종약학회(ASCO)(~4일).
- HLB 리보세라닙, 항서제약 FDA CRL 수령 예정
-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워크)(~31일).

[경제 일반]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 2,670대 급락...코스닥도 동반 하락(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2조7천826억원, 10조5천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 원/달러 환율 6.5원 오른 1,365.0원(마감).

[마켓툰] 외국인 손털자 맥빠진 코스피...10개월만 최대 순매도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1조366억원)과 코스피200선물시장(1조5천424억원)에서 각각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코스피 현물의 경우 지난해 7월 25일(1조3천630억원)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액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순매도 한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4천217억원어치인 557만4천200주가량을 순매도했다.이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SDI(923억원), LG화학(853억원), 현대차(321억원), 네이버(301억원), 현대로템(279억원), 셀트리온(254억원), LIG넥스원(220억원), PSCO홀딩스(200억원) 등을 순매도했다.반면 한미반도체(470억원), SKC(117억원), SK하이닉스(97억원), 아모레퍼시픽(91억원), HD현대(84억원), 기아(83억원), KB금융(58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성 파업' 한마디에...外人 4253억 매도 폭탄

떨떨 나는 나스닥... 설설 기는 코스피... 왜?

국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선 기대가 무르익고 있으나 무색하게도 6월이 다 돼 가도록 2800선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수혜가 미국, 대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기업 밸류업(가치제공) 지원방안에 대해 시장이 '기대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나스닥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증시는 활황세다. 연초 대비 28일 기준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는 11.47%,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6.72%, 대만 자취안지수는 22.43%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1.99%의 상승률을

기록, 사실상 횡보 상태다. 코스피는 29일 들어서도 전일 대비 45.55포인트(1.67%) 하락하며 2700선이 다시 속절없이 무너졌다.

"7만전자는 읍니다" ...반도체 전쟁 다급한데 첫 파업선언까지 터졌다

배터리 수요 둔화 장기화... 2차전지주 줄줄이 신저가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은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 양극재 판가 하락, 유럽과 신흥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 등으로 조정된 중장기 실적 전망치를 고려하면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26.1배의 밸류에이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황의 반등 시점을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및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균판매단가(ASP) 급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와 글로벌 경기 회복, 낮은 재고 수준에 따라 보복 수요가 전망돼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원석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리튬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본격적 물량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가 녹아내렸다"...'2차전지' 베팅한 개미들 '비명'

급전도 못 갚았다... 카드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대

- **관련주: 고려신용정보, SCI평가정보, 아이티아이즈, 쿠콘**

[경제/인구 구조 변화]

출생률 바닥 뚫고 지하로...1분기 첫 0.7명대 또 역대최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다.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관련주: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메디앙스, 케이엠제약, 유엔젤, 오로라, 토박스코리아, 깨끗한나라, 로보로보**

"플라스틱에 죽음을" 해골 그림 캔에 생수...Z세대 열광

[국제-유럽]

푸틴 "서방, 우크라이나 러 타격 허용 시 심각한 결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야 한다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거리 정밀 무기는 우주 정찰 능력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 경우 서방이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 본토 공격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우호적 행동이 아니라 적대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국]

IMF "중 성장을 전망 5%로 상향...1분기 호조"

IMF는 '중국 경제 연례 협의' 대표단 방종을 거쳐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5%, 내년에 4.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치는 각각 4.6%, 4.1%였다. 올해 5% 성장은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설정한 목표치에 부합한다.IMF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호조를 보였고 최근 정

책 조치가 있었다"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재정당국은 이달부터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기업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자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제-그외]

남민촌 공습·이스라엘 탱크 도침 진격해도 '레드라인' 안 넘었다는 미국

라파 시가전 돌입에도 이스라엘 감싼 바이든...지지층은 분열

이스라엘 안보보좌관 "가자전쟁 올해 안에 안끝날 것"

- **관련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지, SH에너지화학, 대한해운, 팬오션, HMM, STX그린로지스**

네옴시티 자금난 해결?... "사우디 아람코 최대 27조 주식 매각 곧 발표"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이르면 이번 주 최소 100억달러에서 최대 200억달러 상당의 아람코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람코는 지난 2019년 IPO 당시 294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만약 아람코의 이번 주식 매각 규모가 200억달러가 되면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주식 매각이 된다.

[원자재]

Oil storage rise supports case for keeping OPEC+ cuts, sources say | Reuters

원유 저장 증가는 OPEC+ 감산 유지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UBS "원자재 랠리 계속... '사상 최고가' 구리·금 더 오를 것"

올해 들어 구리, 금 등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원자재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청정에너지 전환 바람 등으로 산업 금속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정체돼있어서다.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져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 대창, 서원, 엘컴텍, 국일신동, 풍산, LS에코에너지, KBI메탈,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

[정부정책]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권과 첫 자유무역협정(종합)

한-UAE 간 CEPA가 발효되면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아울러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계류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도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인삼류·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된다.

-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코트테크놀로지, 트루윈, SNT다이내믹스, 포메탈, 우리기술, 평화산업**

UAE, 한국에 8조 투자 검토...2조 규모 LNG선 수주 가시권

- **관련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일승, 동성화인텍, 비에이치아이, 한국카본, 대창솔루션**

중동 가는 K-스마트팜...건설과 동반진출 '잭팟'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중동 수출이 이어지면서 건설 업체들도 동반 진출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팜 건설에 도화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CO2 / 신재생]

에어컨 못 틀면 어쩌나...'역대급 폭염' 앞두고 '초비상'

텍사스 전력 수요는 지난 20일 7만2261메가와트(MW)로 2022년 5월 최고치(7만1645MW)를 넘어섰다. 로이터는 "텍사스의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올여름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멕시코에선 수년간 전력 생산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데다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도 줄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관련주: 제룡전기, 제룡산업, 일진전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바이오스마트, 대한전선,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서남, 대원전선, 세명전기, 피앤씨테크,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서전기전, 지투파워, 제일일렉트릭, 보성파워텍, 금양그린파워**
 - [특징주]제룡전기, AI 성장에 변압기 가격지수 '사상 최고가'...배전 변압기 100% 유일 상장사
 - [대가의 선택] 제룡산업, 금속 사업 호조...최대주주 지분 확대
 - [특징주] 일진전기, 미국 AI·전기차 시장 성장에 전력수요 급증...해외수주 잔고 1조3000억 돌파 부각
 - 조선 HD일렉 사장 "5년 주문 짝 차있어...美 AI 열풍에 공장 신·증설도 검토"
 -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로 세계 시장 공략 박차
 - [종목이슈] 바이오스마트, 초고압변압기 발전기용 동 구리 소재 독과점...시총이 800억 '흙속의 진주'
 - 미국 인프라-유럽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한전선 해외사업 순풍 분다
 - [스몰캡 우량주] 가온전선, 국내 3대 전선업체...작년 영업이익 78%↑
 - LS전선, 525kV 초고압 송전케이블 인증...상용화 대비
 - [특징주]서남, '꿈의 초전도 선재' 경쟁사 대비 최고 10배 생산속도..LS전선과 대량생산 협의 부각↑
 - 대원전선, 자동차 케이블로 주력 품목 전환...내년매출 6500억 목표
 - 세명전기,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 HVDC 송전선로 금구류 개발...승인 절차 진행 중
 - 피앤씨테크, 한국전력 고객사 바탕으로 체코 원전 수주 주력
 - (다각화바람)광명전기, 해외시장 개척·친환경제품 개발로 승부수
 - 비츠로테크, 배전반사업 독립...지주사 체제 정비
 - [특징주] 비츠로테크,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1조 규모' 발전기 시장 선도 '주목'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터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 [특징주] 제일전기공업, 美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과 AFCI PCB 독점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 보성파워텍, 전기요금 정상화에 흑전...물가연동제로 이익 기반 마련
 - '전기공사 전문' 금양그린파워, 3월 코스닥 상장

[미래차]

세코닉스 "전장용 렌즈 초격차로 시장 선점"

회사는 2002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용 카메라 렌즈를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에 장착된 카메라 렌즈 역시 세코닉스가 만들었다. 2018년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제조한 자율주행차용 보드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샘플을 납품한 이력도 있다. **세코닉스는 국내 광학부품기업 가운데 전장용 렌즈와 모듈을 함께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중국 정부, 전고체배터리 R&D에 1조원 투자...업계 최대 규모"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차이나데일리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웨리온 등 배터리업체와 비야디(BYD), 디아자동차(FAW),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등 자동차업체의 최소 7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관련주: 레이크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미래컴퍼니, 필에너지, 유일에너지, 엠케이전자, 미코**

[영상] 피엔티, 美대형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장비 물량 수주

피엔티가 건식 전극공정용 장비 관련 대형 수주를 따냈다. 미국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수환 전문기자는 지난 28일 방송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올해 1분기에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규모는 수백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1차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에 장비가 공급될 예정이며, 추가 발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장비는 테슬라의 건식 전극용 장비로, 이는 기존 습식 공정보다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수환 전문기자는 "테슬라가 건식 전극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 반도체]

1분기 글로벌 낸드 매출, 전 분기 대비 28% 증가... "SSD 주문 확대 영향"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8.1% 증가한 147억960만달러(약 20조원)를 기록했다. 트렌드포스는 "2월부터 인공지능(AI) 서버에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주문이 발생했다"며 "PC와 스마트폰 고객들도 가격 상승세를 관리하기 위해 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낸드 매출은 54억달러(약 7조원)로 전 분기보다 28.6% 증가했다. 고객사들이 재고를 늘리고 기업용 SSD 주문이 늘었다.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36.7%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와 자회사 솔리다임의 1분기 매출은 32억7200만달러(약 4조원)로 전 분기 대비 31.9% 늘었다. 시장 점유율도 21.6%에서 22.2%로 상승해 2위를 지켰다.

AI서버용 SSD 주문 급증에 1분기 낸드 시장 28%↑... "2분기도 성장"

엔비디아 發 AI파티... 초대장 받지 못한 삼성전자

모건스탠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발 AI 특수에 따른 수혜주에 SK하이닉스를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33%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엔비디아의 고성장과 주가 상승은 시장의 투자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 말해준다"며 "아시아 AI 공급망 주식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썼다. 삼성전자는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AI 수혜주 추천 목록에서 빠졌다. 삼성전자가 아직 HBM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추천 종목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기흥캠 방사선 피폭 사고 하루 지나서 인지

코닝 "반도체에 유리 더 필요할 것...유리기판 사업 진출하겠다"

- 시간외: **제이티 (+9.98%)(112K) / HB테크놀러지 (+3.79%)(519K)**
- **관련주: 제이티, 제이엔티씨, 유티아이, 희림**
 - 제이티, 삼성 절친 美 코닝 세계 최초 韓 벤더블글라스 통합 공급망 구축...코닝 장비 납품기업 부각
 - (24.04.08)[특징주]제이엔티씨, 수백조 유리기판 시장 선점...8월 데모라인 구축
 - 하나증권 "유티아이, 글로벌 폴더플본 성장 수혜 ↑ UTG 매출 내년 본격화"
 - 희림, 미 코닝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신제품 시장개척 · 연구개발 등 협력

말레이도 반도체 강국 도약 노린다..."150조원 투자 유치 목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소 5천억링깃(약 145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설계,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 등에 투입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독] 티이엠씨, 美 마이크론에 '반도체 핵심' 네온가스 전격 공급..."현지 독점 리사이클링도 논의"

티이엠씨(425040)가 국내 대표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 미국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를 확장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티이엠씨가 미국 마이크론에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Ne)가스 초도 물량을 공급 완료했다. 아울러 네온가스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라운텍 "AI 기대감 확대, 'AR 글래스=AI 글래스' 인식 확산"

김보은 대표는 "이달 중순 오픈AI의 챗GPT-4o,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등 AI 관련 대형 발표가 2개 있었다"며 "챗GPT-4o는 사용자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고, 구글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사용자들이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AI 글래스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AR 글래스를 착용한 사용자가 보는 것을 AI도 보기 때문에, AR 글래스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AR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와 광학 기술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하트러브 메타 부사장이 'AR 디스플레이는 엘코스가 먼저 간다'고 밝혔다"며 "엘코스가 외부광원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외부광원을 레이저로 바꾸면 더 밝은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IT/기술]

"차세대 통신이 완전 자율주행車 핵심 열쇠"

'초연결 시대 게임체인저 넥스트 G' 세션 발표자들은 차세대 통신이 모빌리티뿐 아니라 헬스케어, 도시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키'가 될 것으로 봤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 부사장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엔 지상망 한계를 극복하고 상공망까지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AI 올라탄 애플...아이폰 올라탄 부품주 랠리

애플이 AI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국내 부품주도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현지 시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개될 아이폰16 시리즈에 애플의 AI 기술이 대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휴대폰 교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LG이노텍과 비에이치가 아이폰 판매 증가로 직접적인 실적 개선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LG이노텍은 아이폰16 시리즈에서 화소 수가 상향된 초광각카메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손떨림보정부품(OIS)도 추가로 적용해 평균공급단가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애플에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비에이치 역시 애플 제품 내 점유율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아이패드에도 부품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가상 자산 / 가상 현실]

7월 법 시행 앞두고...금융위,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추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IP/엔터]

서울 찾은 사우디 e스포츠 회장 "한국 게임업계와 협력 확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PUBG) 시리즈를 즐기고,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좋아하는 게이머기도 하다.

빈 반다르 왕자는 "e스포츠는 사우디가 글로벌 게임 산업과 통하는 관문이자, 교육·관광·공연·외식산업까지 결합한 복합 산업"이라며 사우디가 게임·e스포츠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BIO / 의료AI]

건강에 돈 쓰는 베이비부머...제약·바이오株 시간 온다

허혜민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29일 '헬스케어 골드러쉬, 인구 구조와 부의 대 전환'이라는 제목의 하반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전망 보고서에서 "슈퍼에이징 시대, 베이비부머가 쌓아온 자산이 헬스케어산업에 몰리고 있다"며 셀트리온, 유한양행, 덴티움, 한미약품 등을 추천했다. 그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의 최대 관심사인 헬스케어 분야에 쓰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자녀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비만치료제, 황금빛 전망..."공급부족 풀렸다"

비만치료제의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매출 추정치가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1년 전에는 2033년까지 최고 매출 추정치가 1천억 달러(136조5천억 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1천500억 달러(204조8천억 원)로 크게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투자은행 BMO 캐피털 마켓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투자은행 리링크도 2032년까지 연간 매출이 1천580억 달러(215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이 매출 전망치를 크게 올린 것은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Wegovy)와 일라이 릴리의 켈바운드(Zepbound) 등 비만치료제를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덩달아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이큐비아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난해 전 세계 지출은 총 240억 달러(32조8천억 원)에 달했다. 또 이 수치는 2028년 1천310억 달러(1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주: 펩트론, 넥스턴바이오, 디앤디파마텍, 드림씨아이에스, 인벤티지랩, 한독, 한국비엔씨, 일동제약, 아이큐어,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대봉엘에스, 애니젠, 라파스, 대원제약, 고바이오랩, 대응제약,**
 - [특징주] 펩트론, 1개월 지속형 비만·당뇨 치료제 라이선싱 텀시트 수령 소식에 강세
 - [특징주] 넥스턴바이오, 유럽시총 1위 노보노디스크 생산시설 '5조원' 투자...협업 부각↑
 - [특징주] 디앤디파마텍,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흡수율 10배 높은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게임체 인저 기대↑
 - [특징주] 드림씨아이에스, 노보노 GLP-1 협업 지투지바이오 지분 부각 '강세'

- [특징주] 인벤티지랩, 비만약 '위고비' 심혈관계질환 위험 감소 입증... 'IVL3021' 전임상 30일 지속 부각
- 경쟁 확대되는 GLP-1 비만치료제, 한독 '속도전' 승부수 띄운다
- 한국비엔씨, GLP-1 비만치료제 'PAR201' 전세계 개발·상용화 권리 확보
- 일동제약, 당뇨·비만 타겟 신약물질 임상 1상 IND 승인
- [특징주] 아이큐어, 자회사 비만·당뇨치료제 'GLP-1 경구용 나노제제' 국제 PCT 특허 출원 소식에 강세
- 비만약 '속도전' 나선 한미약품... '잭팟' 터트릴까?
- 동아에스티, "뉴로보, 美 당뇨학회서 비만 신약후보 'DA-1726' 체중 감소 효과 발표"
- [특징주]대봉엘에스, 비만치료제 시제품 개발 완료 소식에 강세
- [특징주] 애니젠, 130조 비만치료제 시장에 수혜주 '부각'
- [특징주] 라파스, 美 FDA 승인 비만치료제 '세마글루티드' 마이크로니들 패치 임상 신청 소식에 강세
- 비만약 키우는 대원제약, 핵심 경쟁력 '붙이는 위고비'
- [특징주]고바이오랩, 130조 비만 치료제 시장...GLP-1 유도체 글로벌 빅파마에 LO 추진 '강세'
- "비만 치료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내년 초 임상시작"

퀀타매트릭스 "패혈증 균 잡는 항생제 바로 알려줘"

퀀타매트릭스가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기인 디라스트(dRAST)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50여 종의 항생제 중 패혈증 환자에게 맞는 약을 5~7시간 안에 알려주는 제품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피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균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의료기기도 3년 내 선보일 계획이다.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사진)는 최근 "작년 4분기에만 유럽에서 디라스트를 공급하기로 한 병원이 30여 곳 추가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디라스트 허가를 받기 위한 현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로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관련주: 블루엠텍, 제이브이엠**

- [특징주]블루엠텍, 비대면 진료 필수 약배송 허용..여당 총선 정책 공약 진행↑
 - 블루엠텍은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플랫폼, 전문의약품 통합검색시스템, 제약사와 병원 간 직거래 시스템 등의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운영 중인 비대면 의약품배송 플랫폼 '블루팜코리아'에선 의약품, 의약외품, 소모품 등 5만 여종을 다루고 있다. 가입 의사 회원 수만 2만5000명에 달한다.
- [특징주] 제이브이엠, 아마존 500조 온라인 약국시장 진출...조제 자동화시스템 부각↑

[정치]

윤석열 대통령, 세월호법 수용... '野 강행 4법'은 거부권

홍준표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곤경 몰아넣는 건 옳지 않아"

민주당에 각 세우는 조국혁신당...“중부세 손질, 尹정부에 가세하는 꼴”

[M&A / 주요 공시]

자연과환경, 24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회계기준 위반' 오스탬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천290만원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탬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